

6·25 전사자, 72년만에 가족 품으로

국방부 유해발굴단, 15년 전 발굴 유해 故 박태인 경사 확인 광양 유가족 “2살 때라 아버지 기억 없지만 정말 감격스럽다”

1950년 별교 경찰로 근무하다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박태인(사진) 경사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 2007년 영광군 삼학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유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박 경사의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영광군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故) 박태인 경사(추서계급)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사의 신원확인 소식에 유가족의 아들인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해 이뤄졌다.

박 경사의 유골은 2007년 5월 영광군 삼학리에서 국유단과 육군 31사단 장병의 노력으로 발굴됐다. 이후 유해발굴사업을 접한 박 경사 아들

완근씨는 2020년 10월 광양시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

국유단은 채취한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가족관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정밀 대조한 결과 박 경사와 완근씨가 부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별교경찰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 경사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6사단의 호남지역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군과 전남경찰국이 전개한 호남지역 전투에 참전(1950년 7월 20일~25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삼학리를 경계중이던 경찰 소대 병력은 영광방면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대대에 대한 유격



완근씨만을 두었다. 전쟁 후 박 경사의 부친은 아들의 유해를 수습하고자 보성과 별교 등지를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1976년 95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박 경사가 전쟁에 참여한 당시 2살이었던 완근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에 대해 “워낙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을 전개하면서 영광 불갑산으로 후퇴했고,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진정리에서 4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 경사는 6·25전쟁 발발 당시 슬하에 완근씨만을 두었다. 전쟁 후 박 경사의 부친은 아들의 유해를 수습하고자 보성과 별교 등지를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재회를 이루지 못한 채 1976년 95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박 경사가 전쟁에 참여한 당시 2살이었던 완근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에 대해 “워낙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무슨 일인지 명해서 잘 모르겠다”면서 “아버지를 그토록 찾길 원했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옆에 고이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경사의 귀환행사는 오는 14일 광양에 있는 완근씨의 자택에서 진행된다. 박 경사의 유해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선산 가족묘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관계자는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6·25전쟁에 참전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면 국유단으로 연락을 하거나 지역 보건소, 보훈병원, 군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있으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가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자퇴생 증가세 매년 500~700명...7년간 3887명

전남대에서 최근 7년간 학생 3887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에는 신입생 숫자 대비 자퇴자의 비율이 17%까지 치솟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비례) 의원이 지방거점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방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였으나, 2021년 18.7%로 상승했다.

전남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2016년 505명(신입생 대비 자퇴율 11.9%)에서 2021년 759명(신입생 대비 자퇴율 17.2%)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8월 현재)까지 자퇴생 숫자는 총 3887명에 달했다. 이 기간에 매년 500~700여명이 자퇴한 셈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대 침체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당분만 줄어도...

11일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열린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젓가락으로 설당 집어 옮기기 체험을 통해 즐겨 먹는 식품의 설탕 함유량 수치를 알려주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종료...보행의도 명확때만 단속

계도기간 종료로 1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지만 경찰은 보행의도가 명확할 경우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운전자들 다수가 우회전 관련 개정 법규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본격적인 단속은 보행자의 명확한 보행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보행행위의 구체적 예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밟기 위해 손을 든 경우 등이다.

이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인근에서 주위를 살피는 행위, 횡단보도 인근으로 뛰어오는 행위 등 기타 상황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초등생에 교육수당 20만원 지급”

김대중 교육감 “인구소멸 대응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극복 대안으로 내년부터 지역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부터 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교육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역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도의회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위해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기본 교육참

여위원회를 확대해 전남교육 정책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튜터와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학교 자율사업비를 증액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폐지 논란이 불거진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공동체 조성,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 활성화 등 지난 12년 동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만큼 모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초등학교 입학합격자, 발령까지 5개월 걸린다

6명 중 3명 '임용 대기'·1년 이상 대기도 53명...전남 4.6개월 소요

광주시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약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광주광산 을)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광주시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실제 발령까지 대기 기간은 평균 4.8개월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5.6개월로 가장 길었다. 대전이 13.4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고 전남은 평균 4.6개월이었다.

광주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이상 발령을 기다린 합격자 수는 53명에 달했다. 최대 2년까지 대기한 합격자도 11명이었다.

지난 9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540명이 임용 발

령 대기 상태로,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6명 중 3명이 임용 대기중이다.

2017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65% 이상이 3월, 20% 이상이 9월에 발령받았다는 점에서 지난 9월에 발령받지 못한 광주지역 임용 대기자 3명은 내년 3월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 의원의 분석이다.

민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넘는 시간을 대기하는 것은 전인한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지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교원수급 추세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 구분 | 이용기간 | 정상이용료 |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 | |
|------|------|-----------|-----------------------|--------------|--------------|
| | | | 30점 이상 (10%) | 40점 이상 (15%) | 50점 이상 (20%) |
| 정기회원 | 1개월 | 200,000 | 180,000 | 170,000 | 160,000 |
| | 3개월 | 570,000 | 513,000 | 484,500 | 456,000 |
| | 6개월 | 1,080,000 | 972,000 | 918,000 | 864,000 |
| | 12개월 | 2,040,000 | 1,836,000 | 1,734,000 | 1,632,000 |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